



주간통일정세 2008-38(2008.09.16~09.2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8-38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北, 김정일 건강이상설은 나쁜 사람들의 궤변(9/19, 북한 외무성)

- 현학봉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우리나라 일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나쁜 사람들의 궤변”이라면서 “그런 소리 아무리 해봐야 놀라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일심단결은 깨지지 않는다”고 주장
- 현 부국장은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 남북실무협약에 앞서 남한 기자들의 질문에 언성을 높이는 등 격한 반응을 보임. 현 부국장은 이어 10여분간의 기초발언에서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유보, 북핵 검증체계 문제 등을 조목조목 반박
- 현 부국장은 검증체계 구축에 대해 “미국은 합의되지도 않은 검증에 대해 국제적 기준이란 간판을 걸고 강도식 사찰방법을 적용하려 한다”며 “미국이 이라크에서도 대량살상무기를 찾는다고 사찰했지만 아무 것도 찾지 못하고 결국 전쟁만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남측은 조선반도가 제2의 이라크가 되리라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
- 그는 불능화 중단에 대해서는 “무력화(불능화)는 중단됐고 지금 원상태로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고 에네르기(에너지) 보상을 계속 끌고 있으니 부득이하게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

##### ● 北김정일 활동, 조미대결 격화때 공개안돼(9/1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9절 기념 열병식에 불참한 데 따른 건강이상설에 대해 “과거에도 조미(북미) 대결이 격화되고 조선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최고영도자의 활동이 일정한 기간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고 부인하는 태도를 취함.
- 조선신보는 한반도 긴장고조의 원인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을 지적하고 “미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조선(북한)이 2년전 선택을 보류한 대결노선으로 선회할 공산이 높다”며 “핵보유국으로서 자위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면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예측 불가능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
- 이 신문은 “지하 핵시험을 단행한 조선에는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며 “첫째는 미국의 정책전환을 촉구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는 ‘대화의 노선’이고, 둘째는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으로 적대국의 강권과 전횡을 저지·파탄시키는 ‘대결의 노선’이라고 언급

● **김정남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감.(9/16, 조선일보)**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37)이 지난 주말쯤 평양에서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나온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남이 지난 9·9절(정권 창건일) 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에 갔다가 지난 주말쯤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고 언급

나. 정치 관련

● **北, 美금융위기 자본주의 취약성 보여줘(9/21,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21일 “최근 미국에서 전례없는 금융위기가 휩쓸어 아비규환의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해 “투기와 협잡, 무질서와 혼란으로 얼룩진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李대통령 개성공단 발언 비난(9/21,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21일 ‘영똥한 훼방질’이라는 제목의 단평에서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시 노사갈등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개성공업지구사업 마저 파탄시키자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
- 신문은 “우리측 노동자 숙소문제를 꺼내자 대규모의 노동자 숙소를 만들면 ‘집단화에 따른 노사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느니 뭐니 하며 ‘노사분규가능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개성공업지구사업을 구실이 없어 깨지 못하는 자의 수작질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무지를 드러낸 반통일적인 궤변’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개성공단 기숙사 관련 발언은 “북남협력 사업의 성격과 특수성도 모르는 반통일적 궤변”이라며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는 극악한 반통일역적만이 내뿜을 수 있는 망언”이라고 주장하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극악한 반북대결광신자로서의 역도의 정체가 다시금 날낫이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을 “북남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주범”이라고 비난

● **南의 인권문제 제기 비난(9/20,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20일 “반공화국(반북) 인권소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강력 비난
- 방송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지적한 것 등을 “모략적인 반공화국 인권소동”이라고 비난하



고 이는 “미국의 불순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가담해 우리를 어찌 보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 **北, “수령·인민 혼연일체” 단결 강조(9/17,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7일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를 강조하면서 “이런 단결을 이룩한 나라는 역사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붕괴되는 일이 없으며 언제나 승승장구하게 된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또 “우리 조국이 엄혹한 시련이 닥쳐 올 때마다 기적적으로 솟구쳐 올라 세계를 경탄시키는 위대한 승리와 역사적인 변혁을 이룩해 올 수 있게 한 최강의 무기가 바로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라며 “수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거듭 강조

● **김정일, 노농적위대 열병식 작년 5월 구상(9/17, 민주조선; 조선신보)**

- 북한이 정권수립 60주년(9.9)을 맞아 정규군을 배제한 채 민간무력인 ‘노농적위대’ 열병식을 진행한 것과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해 5월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민주조선이 17일 보도, 민주조선은 이날 ‘9.9절’ 기념행사를 결산하는 ‘김일성 조선은 무궁변영하리라’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을 게재, 작년 5월 김 위원장이 정권창건 60돌 경축 열병식을 민간무력의 열병식으로 진행하려는 구상을 피력한 일화를 소개했다고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보도
- 조선신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5월 “주석님(김일성)께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정세변화를 천리혜안의 예지로 통찰하시고 제때에 민간무력을 창건하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해 바친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해 공화국 창건 60돌 경축 열병식을 민간무력의 열병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며 민주조선은 그 의도에 대해 “노농적위대를 몸소 무어(조직해)주시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켜 주신 주석님의 그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서”라고 소개

다. 경제 관련

● **北, 인구센서스 독려(9/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인구일제조사에 한 사람 같이 성실히 참가하는 것은 숭고한 애국심과 공민적 의무의 발현”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인구일제조사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구일제조사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조사항목은 성별, 나이, 세대주와의 관계, 민족별, 현재 다니는 학교, 최종졸업학교, 자격(기술자, 전문가), 직업(인민경제부문과 직제직종), 결혼과 출생, 사망상태”라며 “이밖에도 살림집 형태와 면적, 먹는 물과 위생실 조건, 난방 조



건과 취사용 연료도 들어있다”고 소개

- 노동신문은 인구센서스의 목적과 관련, “나라의 인구상태를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장악해 사회관리에 이바지하고 경제문화건설의 여러 분야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인구 및 사회경제적 자료를 얻으려는데 있다”고 강조
- 신문은 “유엔인구기금(UNFPA)은 1993년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한 제1차 인구일제조사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혀 이번 조사가 UNFPA의 협조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면서 “인구일제조사는 장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그 진행에는 노력(노동력)과 물자들을 비롯해 재정적 투자가 많이 들게 된다”고 강조
- \* 올해 북한의 인구주택총조사는 14만명의 조사요원이 보름간 북한 전역의 모든 가구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10명의 국제요원이 관찰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최종 결과는 자료분석 후 2009년 10월께 나올 전망

#### ● 北, 감자농사 성과 발표회 개최(9/20,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감자 주산지인 량강도 대흥단군에서 9월 18, 19일 ‘전국 감자 부문 과학기술성과 발표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0일 보도
- 방송은 북한 전역의 농업부문 책임자와 과학자, 기술자, 교사들이 감자육종, 종합적 기계화, 고·저지대 감자재배, 비료농약, 감자저장 가공 등 분과에 참여해 감자농사와 관련한 100여건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리경식 북한 농업상이 토론에 참여하고 변영립 국가과학원장은 폐막사를 맡았다고 소개

#### ● 北아리랑, 노동당 창당일까지 연장공연(9/2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8월 4일부터 9월 말까지로 예정했던 ‘아리랑’ 공연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61돌 기념일까지 연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
-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카크렐 지국장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연 연장 통보를 받았으며 “2002년과 2005년에도 공연이 연장된 적이 있었는데, 창당 기념일까지 공연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언급
- 여행사측은 아울러 북한이 고 김일성 주석의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 4월 새로운 집단체조를 선보일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반 아리랑 공연 계획이 없다고 보도

#### ● 北일부 군수공장, 노동자들에 미국밀 지급(9/18, 연합뉴스)

- 북한의 자강도는 지역내 군수공장 노동자들에게 미국이 지원한 밀을 포함해 10일분의 식량을 공급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보도
- 소식지는 “이번에 배분한 식량의 절반은 입쌀이고, 나머지는 미국이



지원한 밀”이라고 설명하고 “그 동안 일절 배급을 주지 못하다가 8 월 노동자들의 출근율이 현저히 떨어지자 제2경제위원회에서 부랴 부랴 미국 지원 식량을 배급했다”고 소개

- 북한 내각의 석탄공업성도 함북 새별군에 있는 북부지구 탄광연합기업소 근로자들의 결근율이 높아지자 이들에게 미국이 지원한 밀을 공급기로 결정했다고 소식지는 보도

● **北국제신탄개발사, 대외거래 핵심 급부상(9/18, 조선신보)**

- 창설 4년밖에 안된 북한의 조선국제신탄개발회사가 북한의 대외거래에 핵심으로 급부상, 조선신보는 18일 “다른 나라 기업과 무역거래, 신탄투자업무, 금융봉사 등을 진행하는 회사”인 조선국제신탄개발회사가 “착실한 사업방식으로 인해 국내 유관기업들 속에서 신용도가 오르고 외국기업과 사업거래의 폭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
- 이 회사는 2004년 4월 설립돼 수출입업무와 외국기업의 신탄투자, 금융 서비스 등을 진행, 이 회사의 주요 수입품은 콩기름을 비롯한 식료품과 비료, 박막 등 영농물자로 북한내 수요가 큰 품목들임.
- 이 회사는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물자교류 시장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북한 기업과 농어촌에 ‘생산재’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 또한 신탄투자, 금융서비스도 이 회사 핵심사업 중의 하나임. 이로 미뤄 조선국제신탄개발회사는 외국자본을 받아 북한내 기업들에 투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중국의 베이징과 지린성, 홍콩 등에 있는 중국계 자본들과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北, 올해 추수 시작(9/18,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8일 “황해남도 안의 농촌들에서 벼가을(벼 추수)이 시작됐다”며 “신천군 새길협동농장에서 먼저 시작을 뎀 데 이어 재령별과 연백별안의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도안의 농촌들에서 벼가을 전투에 진입했다”고 보도
- 방송은 “협동별마다에 직관선전판들과 힘있는 글밭들이 나붙고 방송선전차와 포전 방송설비들이 일제히 전개되어 농업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고 있다”고 전언

라. 군사 관련

● **北, 호국훈련 강화 비난(9/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미국 해병대 1개 연대와 남한 해병대 2개 연대가 참여하는 연합해병대상륙훈련인 호국훈련이 오는 11월 열리는 데 대해 “외세와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범죄적 책동이 얼마나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북침공격기도를 드러낸 위험한 해병대상륙훈련’ 제목의 글



에서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해마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해 벌여 온 연합전시증원연습,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서도 해병대병력이 투입되는 상륙훈련이 벌어졌지만 이번처럼 사단급의 연합해병대상륙훈련이 추진되기는 처음”이라고 지적

#### 마. 사회·문화 관련

##### ● 가을철 산불 예방 당부(9/1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8일 ‘9~11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산불 예방을 당부, 중앙TV는 18일 오후 8시 정규 뉴스시간에 계도성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의 귀중한 재보인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공민적 의무”라며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 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고 강조

\* 북한은 3~5월을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9~11월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각각 지정해 산불예방사업을 벌임.

##### ● 전국무도선수권대회 개막(9/18, 조선중앙통신)

- 제3차 ‘9월10일상’ 전국무도선수권대회가 18일 평양시내 태권도전당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 北, 역사이야기 ‘부루왕자’ 출간(9/18, 조선신보)

- 북한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단군의 태자 부루(夫婁)를 주인공으로 한 장편 역사이야기 ‘부루왕자(리규춘 지음)’를 펴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은 저자가 초기 고조선사를 연구해 관련 자료와 당시 생활상을 찾아냈으며 “장편사화 ‘부루왕자’는 단군의 아들 부루가 나라의 명줄인 종곡(씨앗으로 쓸 곡식)을 구하고 오랑캐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협에 처했을 때 결연히 앞장에 서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나라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모습에 대해 서술했다”고 소개

##### ● 北, ‘동물 다양성 보호’ 과학기술 발표회 개최(9/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7일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동물, 수산자원 보호부문 전국 과학기술 발표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 평양국제영화축전 개막(9/17, 평양방송)

- 제11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17일 평양 국제영화회관에서 개막됐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9월 26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는 세계 40여 개국에서 영화를 출품했으며, 장편예술영화와 기록 및 단편영화 경쟁, 특별상영과 북한영화 시사회가 진행

- 개막식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박관오 평양시 인민위원장, 백한수 문화성 부상 등이 참석

- **北 신기록제조기 ‘소녀力士’ 림정심(9/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역기(역도)경기관 청소년체육학교 학생으로 각종 경기에서 우승해 ‘소녀역사(力士)’로 불리는 림정심(15)이 다시 청소년 신기록을 세움.

## 2. 대외정세

### 가. 6자 회담관련

- **9·19 외무성 대변인 성명**
  - 얼마 전부터 핵시설 원상 복구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 바라지도 않고 우리대로 나가면 될 것이다.
- **北, IAEA에 핵시설 복구계획 미통보(9/20, 연합뉴스; 9/19, 조선중앙통신)**
  -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아직까지 핵시설 재가동 계획을 알려오지 않았다고 비엔나의 외교소식통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 외교소식통들은 이어 IAEA가 영변 핵시설에 붙여놓은 봉인을 제거해달라는 북한 측의 요청이 아직 없었다고 덧붙임.
  - 앞서 현학봉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19일 오전 판문점에서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 문제와 관련, “복구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같다”고 말한 데 이어 같은 날 외무성도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얼마전부터 영변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고 있다”고 밝힘.
- **한미 6자 수석대표 21일 뉴욕서 회동(9/19,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1일 오후 뉴욕에서 회동, 핵 검증 이행방안 등 현안에 대해 협의,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면서 “최근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를 본격화하는 북한의 동향과 핵 검증 방안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 **남북, 오늘 판문점에서 6자 에너지실무협약(9/19, 연합뉴스)**
  - 남북한은 19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에서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갖음. 북한측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지난 7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맞춰 한·미·중·러 등 4개국이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중유 95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문제를 논의할 예정



-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황준국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북측에서는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

#### 나. 북·미 관계

##### ● 北박길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행(9/18, 조선중앙통신)

- 박길연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제6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평양을 떠났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 올해 유엔 총회는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며, 한국에선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

##### ● 北,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 촉구(9/1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7일 미국이 ‘북한 위협론’을 거론하며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평화보장체제가 수립되지 않은 것”과 관련된다며 미국에 대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
- 방송은 이날 ‘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대화의 방법으로 저들의 목적을 이루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무력행사로 조선침략 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이 미 호전세력의 기도”라며 이 같은 전략에 입각해 미국은 “앞에서는 대화를 표방하고 뒤에서는 우리(북)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벌이며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주장

#### 다. 북·중 관계

##### ● 인민일보 대표단 면담(9/18, 조선중앙통신)

- 노동당 김기남 비서와 김중린 비서는 18일 평양시내 만수대의사당에서 비서장 장덕수를 단장으로 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대표단과 류효련 부주석을 단장으로 한 중화전국부녀연합회 대표단을 각각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라. 북·일 관계

##### ● 노동신문, 日에 식민지배 배상 요구(9/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일본의 과거청산과 북·일 국교정상화를 골자로 한 ‘평양선언’(9.17) 6주년에 즈음해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
- 신문은 ‘과거청산을 떠난 일본의 앞날은 없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존엄과 자주적 권리와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이며, 일본의 재침 야망을 깨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첨예한 문제”라고 주장



● **北, “日, 평양선언 백지화” (9/17, 평양방송)**

- 일본이 2002년 9월17일 과거청산과 조속한 국교정상화를 골자로 발표한 북·일 평양선언을 “백지화” 하고 “반공화국(반북) 압살책동”에 열중하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17일 비난
- 평양방송은 평양선언 6주년을 맞은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얻을 것이란 수치스러운 파멸과 고립 배격뿐일 것”이라고 언급
- 평양방송은 북한이 평양선언의 이행을 위해 ‘납치문제’의 경우 “최대한의 인도적 성의”를 발휘했으나, 일본은 “평양선언 이행에서 기본이 되는 과거청산 문제는 뒷자리에 미뤄놓고 본질상 다 해결된 납치문제를 들고 나와 반공화국 적대시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

마. 기타외교 관계

● **北농민단체 대표단 베트남 방문(9/20, 조선중앙통신)**

- 강창욱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중앙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농민 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20일 평양을 떠났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네팔 정부 공보대표단 방문(9/20, 조선중앙통신)**

- 20일 평양에는 크리시나 바하두르 마하라 정보장관이 이끄는 네팔 정부 공보대표단과 함께 제4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중국, 러시아, 독일, 스웨덴, 호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대만 대표단이 도착

● **北·라오스 ‘체육협조 양해문’ 조인 (9/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의 체육지도위원회와 라오스 국가체육위원회가 18일 평양에서 ‘체육협조에 관한 양해문’을 조인,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북한 측에서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이, 라오스 측에서는 방북 중인 푸통 생아킴 체육위원장이 참석해 양해문에 각각 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과 라오스는 1974년 수교 후 경제 및 기술협조 협정(1974년), 항공협정(1992년), 무역협정(1997년) 등을 체결했으며 지난 6월에는 북한 주상성 인민보안상이 라오스를 방문해 통반 센가폰 라오스 내무장관과 사회안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 또 부아손 부파방 라오스 총리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김영일 총리와 회담을 갖고 ‘경제·무역·과학 및 기술협조 공동위원회 창설 협정’을 체결

● **유럽의회서 북한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9/17, 연합뉴스)**

-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유럽의회 건물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미술



작품 전시회가 개최

- EU의회 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인 글린 포드(영국) 의원과 야스 고론스키(이탈리아) 의원이 공동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북한 백호 미술창작사 소속 화가들의 작품 약 40점이 전시됨.
- \* 백호미술창작사는 만수대미술창작사와 함께 북한의 미술 창작활동을 이끄는 곳으로 특히 풍경화에 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6일 오후(현지시각) 개막행사로 공식 막을 올린 이번 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계속됨.

### 3. 대남정세

- **‘10·4선언’ 사업이행 하는데 14조3000억 비용 추산(9/18, 통일부)**
  -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10·4 선언의 합의 사업을 이행하려면 14조3000여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통일부가 18일 밝힘.
  - 통일부는 또 자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경제협력 대가 등으로 재정과 민자를 합해 북한에 모두 3조500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밝혔음.
  - 구체적으로 ▲식량 차관과 비료 무상 지원 등 인도적 지원 2조366억원 ▲철도·도로 건설 차관, 개성공단 기반시설 등 경협 기반시설 조성 4171억원 ▲현대 포괄사업권(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대북 송금), 금강산 관광 비용,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등 민간기업 상거래 형식 10억3048만 달러(약 1조305억원) 등임.
- **2008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 9.2%(9/18, 연합뉴스)**
  - 지난 7월까지 집행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올해 확보한 예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18일 발간한 2007년도 통일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올해 확보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1조 2천745억여원 중 지난 7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1천170억여원으로 9.2%에 그침.
  - 보고서는 저조한 예산집행의 이유를 “남북관계 경색의 영향”이라고 분석, 작년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은 66.7%로, 무상 남북협력사업 중 경제분야협력기반 조성 사업이 51.5%로 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
- **金통일, 민간 대규모 방북 허용 시사(9/18, 연합뉴스)**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8일 인도적 지원 뿐 아니라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민간단체 대규모 방북도 허용할 방침을 시사



-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민간교류와 관련, “금강산 사건 이후에 대규모의 대표단이 간다고 해서 국내 여론을 의식해 조금 연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한 데가 한두군데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가시게 되면 웬만하면 허용을 할 것”이라고 밝힘.
  - 김 장관은 이어 “지자체 교류는 허용을 한다”며 “북한이 고위 당국자간 접촉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고위인사 같은 경우는 여러 생각을 해보겠지만 다른 레벨의 교류에 있어서는 케이스를 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허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임.
- **전남 남북協, 평양에 제빵기계 지원(9/18, 연합)**
    -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18일 오전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평양 발효콩 빵공장 설비기기 지원물자 환송식’을 개최, 이번 행사는 남북 교류협의회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함께 최근 평양에 세운 발효콩 빵공장에서 사용할 제빵·제과기계를 북으로 보내기 위해 마련
    - 발효콩 빵공장은 평양 만경대 인근에 총 6억원을 들여 2층 규모로 세워지며 북측에 전달할 제빵·제과기계는 5t트럭 2대분량으로 시가로는 5억5천만원 어치임.
    - 협의회는 빵공장이 완공되면 11월께 100여명의 민간대표단을 평양에 보내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
  - **강원대·평양과학기술대 교류협정 체결(9/18, 강원대)**
    - 강원대는 북한에 세워지는 최초의 남북합작 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와 학술 및 실무교류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 평양과학기술대는 북한의 정보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 평양시 낙랑구역에 설립 중이며 내년에 개교할 예정
  - **개성공단 中企 “올해 생산액 51% 성장”(9/17,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는 17일 “남북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기존 업체들의 올해 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 성장했다”고 밝힘.
    - 개성공단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내 한 업체가 조업중단을 하는 등의 문제는 개성공단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남북근로자간 가치관 차이에서 기인한 사건”이라며 “소수의 부정적인 사례로 개성공단이 마치 문닫는 것처럼 몰아 성공을 위해 피땀을 흘리고 있는 입주기업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언급
  - **북한군 유해 판문점 통해 송환(9/17, 주한 유엔군 사령부)**
    -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17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 유해 1구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



- 50만달러이하 대북투자, 보고서 제출 면제(9/17, 기획재정부)
  - 앞으로 북한에 50만달러 이하 규모의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발표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핵시설복구 가속하면 에너지지원 중단”(9/21)
  - 외교 소식통은 21일 “북한이 영변의 핵연료봉공장, 5MW원자로, 재처리시설 등 불능화 조치가 이뤄지던 3개 핵심 시설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복구작업의 속도가 느리지만 가속화된다면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 의장국인 한국은 북한의 핵시설 복구 움직임에도 북한을 자극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당분간 계획된 에너지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음. 다른 소식통은 “지금은 북한의 의도가 불분명하지만 북한의 핵시설 복구가 보다 노골적으로 진행된다면 에너지 지원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 정부 당국자는 1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에너지지원 실무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5개국(한·미·중·일·러) 간의 협의결과 행동대 행동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하지만 어느 정도 빨리 (불능화)상황이 악화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 “北, IAEA에 핵시설 복구계획 미통보”<외교소식통>(9/20)
  -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아직까지 핵시설 재가동 계획을 알려오지 않았다고 비엔나의 외교소식통들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 외교소식통들은 이어 IAEA가 영변 핵시설에 붙여놓은 봉인을 제거해달라는 북한 측의 요청이 아직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학봉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19일 오전 판문점에서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 문제와 관련, “복구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



고 있다.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같다”고 말한 데 이어 같은 날 외무성도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얼마전부터 영변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한은 지난 여름 영변 원자로와 핵시설 등의 불능화를 모니터할 수 있는 IAEA 조사관들이 영변핵시설 단지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데 합의한 바 있음. 북한은 아울러 에너지 지원과 제재 완화에 대한 교환조건으로 IAEA의 핵시설 봉인 조치와 감시 카메라 설치를 받아들였음.

#### ● 미국무부 “北 영변 재가동 근접중”(9/20)

- 미 국무부는 19일 북한이 핵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아직까지 영변시설을 재가동한 상태는 아니지만, 원상복구를 하는 쪽으로 점점 근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아직 영변시설을 가동하는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그런 상태까지 가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 그는 “북한의 움직임을 3단계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는데, 첫 단계에서 북한은 (불능화를) 되돌리겠다고 밝혔고, 2단계에서는 폐쇄된 영변 시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준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영변시설을 재가동해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2단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와 종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어 혜택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계속 고립시키면서 북핵 프로세스를 뒷걸음질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

#### ● 미국무부 “영변 재가동상태 아니다”(9/20)

-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영변시설의 원상복구를 하는 쪽으로 점점 근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영변시설을 가동하는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그런 상태까지 가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와 보다 나은 관계를 원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고립으로 치달을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이 부시 행정부 임기말에 협상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미국의 새정부가 내년 1월에 들어선다고 해도 현재의 협상과 다른 협상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 ● 한미 6자수석대표 21일 뉴욕서 회동(9/19)

- 한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1일 오후 뉴욕에서 회동, 핵 검증 이행방안 등 현안에 대해 협의.
-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면서 “최근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를 본격화하는 북한의 동향과 핵 검증 방안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정일 건강문제로 北비핵화협상 교착” <WSJ>(9/19)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으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이 19일 보도.
- WSJ은 김 위원장이 업무에 전면 복귀하기 전까지 북한은 군부 등에 의한 강경한 외교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내년초 미국의 신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한 모험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 북한 정국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뉴욕에 상주한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과의 ‘뉴욕채널’ 가동 외에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 상황 파악을 위한 정보를 얻고 있지만 이들 모두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미 당국자가 전했다.
- 미국은 최근 수 주간 북한이 서해안 지역(평북 철산군 동창리)에 새로 건설한 미사일 기지에서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교당국인 국무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

● 英IISS “북한, 1년내 핵시설 복구할 수 있어”(9/19)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18일 이같이 밝히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인해 핵을 둘러싼 북미간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존 치프먼 IISS 소장은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을 저지하려는 외교적인 노력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며 “북한의 핵시설 복구에는 1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프먼 소장은 또 북한이 대중 관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대미 관계의 개선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이 선뜻 이에 응하기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 미국은 북핵뿐 아니라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재래식 병력 등과 더불어 인권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처지가 기 때문.

● 美CIA, 北-시리아 핵커넥션 추적경위 공개(9/19)

- 미국 중앙정보국(CIA) 마이클 헤이든 국장이 북한과 시리아의 핵커넥션을 추적, 규명해 낸 경위를 이례적으로 공개. 헤이든 국장은 지난 16일(미국시간) 비영리단체인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에 참석, CIA가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확산 네트워크를 확인, 침투,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을 거론



하면서 그 경위를 설명.

- 헤이든 국장은 “북한이 2년 전에 핵실험을 실시했고, 정보당국은 적어도 북한이 6개(half-dozen)의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전 지구적 군비통제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헤이든 국장은 “시리아가 북한의 도움으로 핵원자로를 지었다면 시리아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혹시 그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비밀리에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도 제기했으나, 북한이 시리아에 핵시설을 수출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지배적이었다고 소개.

### ● “북핵 검증체계 결국 합의될 것” <네그로폰테>(9/17)

-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비록 불능화작업을 중단했지만 핵프로그램 폐기 검증을 위한 계획에 결국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이날 홍콩의 미상공회연구소 주최 오찬에 참석, 북한과의 협상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지만 결국 북한이 핵무기 폐기 여부를 검증할 사찰관을 받아들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가까운 장래에 북한으로부터 검증체계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9일 일정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선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거쳐 홍콩에 도착했다.

## 나. 미·북 관계

### ● “北 인구조사 최종점검 중” <UNFPA>(9/20)

-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은 내달 1~15일 실시될 북한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해 최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고 UNFPA 방콕사무소의 윌리엄 라이언 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밝혔다.
- 라이언 대변인은 1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최종 점검이 이달 한달간 계속된다며 UNFPA 관계자들이 이달초 북한의 중앙 통계기관에서 진행된 실무교육에 이어 19일까지 각 도의 통계기관에서 진행되는 현장 조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참관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는 UNFPA 관계자들이 시와 군 단위 통계기관 중 일부를 방문해 교육을 참관. 라이언 대변인은 이번 조사에 3만5천 200명의 현장 조사요원과 7천500명의 지도요원이 투입돼 북한 전역의 모든 세대를 방문하고, 중앙에서 군 단위까지 북한 전역의 통계기관 종사자 1천400명도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 현재 현장요원에 대한 교육 외에 나머지 준비사항은 모두 완료돼 “컴퓨터 등 설문조사 결과 처리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각 도에 모두 전달돼” 설치되고 있고 “설문조사 요령을 담은 지침서와 3만5천 부의 설문조사용 지도, 설문지가 모두 배포됐다”고 라이언 대변인은 밝혔다.



- UNFPA가 작성한 ‘북한 2008 인구주택 총조사용 소모품 목록’에는 자료입력용 데스크톱 컴퓨터 171대, 프로젝터 10대, 모뎀과 네트워크 서버 12대, 각종 인쇄기와 복사기 등이 포함돼 있음.

### ● 美, 北 종교탄압 ‘특별관심국’ 8년째 지정(9/20)

- 미 국무부는 19일 북한을 비롯해 중국, 미얀마(버마), 이란, 수단, 에리트레아, 사우디 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했음.
-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8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들 8개국을 종교탄압국으로 재지정했음.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1년 이래 8년째 내리 종교탄압국 명단에 올랐음.
- 국무부는 지난 1998년부터 관련법에 의거해 미 의회에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음.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이뤄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
-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해 “북한 헌법은 ‘종교적 믿음’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종교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인 지난 1년 동안 종교자유를 극단적일 정도로 낮춰보는 태도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말했음. 보고서는 “김정일과 그의 선친(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는 정권의 이념적 지주가 되고 있고, 때로는 국교(國敎)의 교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음.

### ● “외국정부, 北에 외교공관 설치 검토해야”(9/20)

-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노르웨이의 오슬로 평화인권센터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19일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정부들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평양에 외교공관 설치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촉구했음.
- 북한인권위원회 등은 이날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인권보호 실패: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전’이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음. 이 보고서 작성에는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 보스턴대 교수 등이 관여했음.
- 보고서는 북핵 6자회담의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를 제외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등 4개의 실무그룹 회의에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 다루야 한다고 주장했음.
- 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이자 국제규범이라고 한 관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대북전담 라디오 방송국의 설치를 허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인권재승인법안'을 지난 5월15일 통과한 데 이어 상원도 이르면 금주에 주무 상임위원 외교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 하월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인권 재승인법안이 통과되면 상·하원 관계자들은 내주초 만나 양원 법안 내용 가운데 상이점을 조정한 뒤 양원은 오는 26일 110회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를 처리할 것으로 전망.
- 미 의회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르면 금주말께 상원에서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면서 “17.18일께 주무 상임위원 외교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상원 본회의에 이를 상정,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상원에 계류중인 법안은 오는 2012년까지 NGO(비정부기구)를 통해 북한에서의 인권 및 민주주의, 정보의 자유를 지원하거나,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 정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내 대북방송기구들이 하루 12시간 방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도록 하며, 대북인권특사를 ‘대사’급으로 격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 북한군 유해 판문점 통해 송환(9/17)

-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17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 유해 1구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일 강원도 화천군 평화의 댐 근처에서 발견된 북한군 유해를 오늘 송환했다”면서 “최근 판문점 일직장교간 전화통화에서 북측이 유해를 받겠다고 응답해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올들어 북한군 유해가 송환되는 것은 지난달 8일 이후 두번째.

#### ● “美정부 차분 대응, 北 안심시킬 것” <美전문가>(9/17)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차분한 대응이 북한을 안심케 하는 신호가 될 것으로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
-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태 진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했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위기감을 크게 조성하지 않고 조용히 대응하는 것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
-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외교정책 담당 국장은 “미국의 차분한 반응은 북한을 안심시키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의 차분한 반응은 북한의 정치적 혼란을 미국이 이용하려들지 모른다는 북한 내부의 우려를 안심시키는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안보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던 박사는 “미국은 북한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든, 또 누가 지도자가 되든 한반도 비핵화 분야에서 이뤄져온 긍정적인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고, 사회안정



을 유지하며, 군사적 도발을 막기를 원한다”며 “따라서 조용한 (low-key) 외교를 통해 지금까지 이뤄져온 활동들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 美, 95년 이후 北에 12억여달러 지원<CRS>(9/17)

- CRS는 이날 공개한 ‘미국의 대북(對北) 지원 보고서’에서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식량 258만여t(7억100만달러 상당)을 비롯해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한 대북중유 지원에 1억4천600만달러,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를 통한 대북지원에 4억300만달러를 지출하는 등 총 12억6천여만달러를 북한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99년 북한에 식량 69만(2억2천만 달러)을 비롯해 KEDO 지원 등으로 총 2억8천700만달러를 지출,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한 반면에 지난 2006년엔 식량이든 에너지든 지원이 전무했음. 올해의 경우 미국은 대북식량지원 50만t을 비롯해 중유지원에 1억600만달러를 지출할 계획.
- 보고서는 또 미국이 2007년에 북한 영변핵시설 불능화를 위해 2천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내년 예산에 6자회담과 중유지원 비용으로 1천500만달러를 요청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 ● 美, 대북 지원식량 5차분 선적중(9/17)

-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50만t중 5차분 3만t이 선적에 들어갔음.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소식통을 인용, “영양 상태가 나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옥수수뿐 아니라 밀, 강화우유 (fortified milk), 콩 등 혼합 곡물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복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미국이 식량지원을 속도조절 없이 계속하는 것은, 핵과 인도적 문제는 별개라는 미 정부의 공식 입장 외에도 북핵 상황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RFA는 북미간 합의에 따라 식량배분 감시활동은 24시간 전에만 통보하면 되는데 북한의 자강도 일부 지방 관리들이 최근 감시요원들에게 ‘도로사정이 좋지 않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24시간 이상의 사전통고 시간을 요구하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추가 선적이 이뤄지고 있는 데 주목했음. RFA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9월초에 북한을 방문한 미국 비정부 구호단체 대표들은 북한 당국과의 협의에서 자강도 관리들의 핑계가 타당하다고 여기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unacceptable)’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홍수로 인해 다리가 끊겨서 접근이 안 되면 다리가 끊긴 근방에 가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북한측은 이에 대해 시정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 “美, 뉴욕채널 통해 北과 계속 접촉” <국무부> (9/17)

- 국무부 손 매크맥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 북핵 6자 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베이징에서 돌아온 뒤 북한측과 직접 접촉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연락을 취하는 전형적인 방법인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측과 접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총회 기간에 북핵 6자 회담 장관급 회담을 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 매크맥 대변인은 이어 “6자 회담을 어떻게 진전시킬 지 중국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핵 신고내역에 대한 검증체제로,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에 검증체제에 대해 합의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새 미사일기지서 몇달전 로켓엔진 시험” <美관리> (9/17)

- 북한은 새로 건설한 장거리미사일 발사기지서 몇 달 전 장거리미사일 로켓 엔진 시험을 했다고 AP통신이 미국의 한 관리를 인용, 17일 보도.
-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AP통신은 지난주 북한이 서해안에 기존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기지 보다 규모가 크고 기능이 향상된 새 기지를 건설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북한이 엔진시험을 한 미사일은 사정 약 2천500마일(4천25km)의 기존 대포동 2호로 새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포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아메리칸大, 뉴욕필 평양공연 사진전 개최(9/16)

- 지난 2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역사적인 평양공연과 북한의 당시 모습을 소개하는 사진전이 미국 아메리칸대 카첸 예술센터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개최.
- 이번 사진전은 미국의 유명 사진작가인 마크 에드워드 해리스가 뉴욕필의 평양공연에 동행, 촬영한 사진들을 모은 것. 특히 전시회 기간인 10월 5일에 열리는 리셉션에는 뉴욕필 지휘자인 로린 마젤이 참석해 평양공연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美망명 탈북자 첫 영주권 획득(9/16)

-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귀화국은 지난 2006년 5월 태국에서 난민지위를 부여 받아 미국에 도착한 30대 후반 여성 김미자씨(가명, 버지니아주 거주)에게 15일 영주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김씨 변호인에게 통보했음.
- 김씨의 영주권 획득 변호를 맡았던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는 “이번 탈북자 김씨의 영주권 획득은 지난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돼 미국 망명이 허용된 이후 첫 사례”라고 밝혔다.

-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 미국에 도착한 뒤 노동허가권을 발부받아 1년간 지내면서 미국 생활 적응기간을 거쳐 1년 전에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이번에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발부됐다고 전 변호사는 전했다.

#### 다. 중·북 관계

##### ● 베이징서 北 9.9절 60주년 미술전 뒤늦게 개막(9/18)

- 북한의 9.9절(정권수립기념일) 60주년을 기념하는 미술전시회가 18일 베이징(北京)의 중와이보이(中外博禮)화랑에서 막을 올렸다고 중국의 반관영통신 중국신문사가 보도.
- 북한은 이달 2일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베이징과 베를린에서 각각 9.9절 60주년 기념 미술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공개했지만 구체적 일정은 밝히지 않았음. 북한의 문화성과 중국의 문화부가 공동 주관하고 중국대외예술전람중심이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북한의 공훈예술가, 인민예술가, 청년화가들이 창작한 유화, 판화, 자수 등 59점이 출품됐음.
-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는 전시회 개막식에서 “전시회는 양국인민의 우의를 증진시키고 문화교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국의 인민들이 조선(북한)의 아름다운 풍경과 조선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中 고위관리, 김정일 건강이상설 첫 언급(9/18)

- 중국 공산당의 류홍차이(劉洪才) 대외연락부 부부장(차관급)은 지난 16일 도쿄 방문 중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일본 공명당 대표로부터 김 위원장이 뇌졸중에 걸렸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한국과 일본 내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고 한 공명당 관리가 전했다. 류 부부장은 이어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추측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며 “분명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김 위원장은 아마도 당분간 요양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이 관리는 밝혔다.

##### ● 中, 北 접경지역에 대형 무역상가 개설(9/18)

- 중국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에서 막을 올린 제1회 창바이변경무역상품교역회에 맞춰 이우(義烏)상품타운이 창바이통상구 부근에서 정식으로 문을 열고 영업에 들어갔음. 상가에는 베이징(北京), 산둥(山東), 장쑤(江蘇), 저장(浙江)성 등에서 온 56개의 외지기업이 입주했으며 북중 접경지역의 통상구에 자리잡은 무역상가 중 단일상가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으



로 평가받고 있음.

- 총 3만5천㎡의 부지에 세워진 상가에서는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북한에서 수요가 많은 경공업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음. 창바이통상구는 중국의 국가1급 통상구로 지난 한해 이곳을 통해서만 북한과 2천10만달러 상당의 교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음.

#### 라. 일·북 관계

##### ● “日, 北 유사시 대비 위기관리시스템 재검토”(9/21)

-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유사시에 대비해 마련돼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을 5년만에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日本經濟)신문이 21일 보도.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을 감안, 북한 정세가 혼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한국 체재 일본인, 미국인 철수 절차와 북한 난민 수용 매뉴얼 재점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재검토 작업은 내각관방에 관계 성청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회사, 지방자치단체와 연대 방법, 자위대와 경찰의 경계태세 등을 재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은 1993년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을 계기로 정비된 바 있다. 여기엔 난민 유출, 무력 충돌 등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한국,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일본인, 미국인 등의 철수, 난민 수용 등과 관련한 매뉴얼을 두고 있음.

##### ● EU.일본, 올해도 유엔에 대북인권결의안 제출(9/19)

- 유럽연합(EU)과 일본은 23일 개막되는 올해 유엔 총회에서도 대북 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유엔 주재 일본대표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유럽연합과 일본의 대북 인권 결의안 제출은 올해가 4번째이며 유엔 총회는 지난 3년간 이들 결의안을 채택했음. 올해 결의안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과 인신매매 등의 중단을 요구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음.
- 올해 유엔 총회에서는 또 북한의 식량난과 대북 식량지원 문제도 논의하게 된다고 유엔 워싱턴사무소의 월 데이비스 소장이 밝혔음. 데이비스 소장은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들을 보면 북한을 지원이 가장 시급한 국가중 하나로 지정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북한을 포함한 식량부족 국가에 대해 WFP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 마. 기타

### ● 유럽의회서 북한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9/17)

- 유럽의회 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인 글린 포드(영국) 의원과 야스 고론스키(이탈리아) 의원이 공동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북한 백호 미술창작사 소속 화가들의 작품 약 40점이 전시되고 있음.
- 백호미술창작사는 만수대미술창작사와 함께 북한의 미술 창작활동을 이끄는 곳으로 특히 풍경화에 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백호미술창작사는 이번 전시회에도 백두산 천지를 그린 작품 등 다수의 풍경화는 물론 선군정치를 독려하는 북한 특유의 사실주의 작품도 전시하고 있음.

### ● 北 문화성 첫 해외 미술전 獨서 큰 호응(9/17)

-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아트센터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아트 프롬 평양(Art from Pyongyang)'전에는 북한 최고의 화가에 해당하는 김일성상 계관인 김성민, 홍춘용 최성용, 김승희 외에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정창모, 선우영, 최창호, 김상직, 황영준 등 100여 화가의 작품 150여점이 전시되고 있음.
- 만수대창작사, 송화미술원 등 북한 예술단체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북한 미술 작품들을 소개한 적이 있고 유럽에서는 지난해 런던과 제노바의 현지 소장가들이 개인 차원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만 북한 정부 차원에서 해외 전시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
- 이번 전시회는 내년 9월 제주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3회 세계델픽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국제델픽위원회의 후원과 재미 성악가로 미국에 본거지를 둔 기획사 '유리디씨 예술기획'의 예술감독인 최상균 씨의 주선으로 이뤄졌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美의회, 한미FTA 올해내 비준동의 어려울 듯”<CRS>(9/17)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안에 미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할 것 같다고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음.
- CRS는 16일 공개된 한미관계 보고서(7월25일 업데이트 작성)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아직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전망.
-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 지도부 및 민주당 대통령 후보간의 견해차로 인해 2008년내에 한미 FTA의 비준동의를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한국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



한 비준동의안 제출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고 언급.

- 보고서는 “한국 국회도 FTA에 대해 비준동의해야 하지만 찬반의견이 엇비슷하게 갈려 있다”면서 “미국에서도 자동차와 철강업체 및 노조가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농업계와 일부 의원들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제한으로 지지를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미FTA가 의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발효될 경우 미국으로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두번째로 큰 FTA가 된다고 밝혔음.

#### ● 美 상무 “한·미 FTA 조속 비준 촉구”(9/16)

- 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장관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로스앤젤레스(LA)항을 방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의회에 촉구.
- 이달 16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미-중 통상무역위원회 참석차 LA를 방문한 구티에레스 장관 일행은 이날 오후 선박편으로 LA항을 둘러본 후 기자회견을 열어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 구티에레스 장관은 “무역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콜롬비아와 파나마, 한국과 체결한 FTA를 빨리 비준해줄 것을 의회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음. 그는 한·미FTA의 비준 전망을 묻는 질문에 “한·미FTA는 3가지 FTA 중 가장 중요하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의회에 상정해 올해 내로 비준할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고 강조.
- 슈워브 대표는 “한·미FTA는 양국 모두에 경제적 혜택을 주며 미국 경제에는 100억달러를 기여할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의회 민주당 지도자들이 청문회 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비준을 위한 절차들을 밟지 않고 있다”고 지적.

#### 나. 미·중 관계

##### ● 中, 美 상원 티베트 결의안 비난(9/21)

- 중국은 최근 미국 상원이 채택한 티베트(시짱:西藏)의 인권과 관련된 결의안에 대해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난했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로 달라이 라마와의 접촉 문제 역시 중국의 국내 문제”라고 전제하고 “미 상원이 우리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음.
- 장 대변인은 이어 “미 의회는 국제 사회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티베트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와 묵인을 그만둬야 한다”면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미 관계를 해치는 잘못된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음.



- 미 상원은 최근 중국 정부가 달라이 라마와 진지한 대화에 나서고 티베트인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음.

● 中 “美와 北붕괴대책 논의한 적 없다”(9/16)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이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 중이란 외신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중국과 미국 간에는 이런 접촉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음.
- 미국 폭스뉴스는 11일 미국과 중국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 한편 장 대변인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는 “유관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해 북한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